

### 가정과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습 지원

장성 성산초, ‘온라인개학’ 맞춰 교육 사이트 활용 방법 안내

교내 준비된 교재·교구 등 대여...중증장애시 재택순회교육도

장성 성산초등학교(교장 조희영)는 정부가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온라인개학’을 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온라인 학습과 연계한 가정학습지원

을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학습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주간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부모님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셋업 가정 학습, 에듀에이블 등 교육 사이트 활용방법을 안내하였다.

또한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특수교육활동 자료와 교재·교구 등을 대여하고 방문 교육 시 활용하고 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콘텐츠 활용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재택순회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교사가 가정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학습 자료나 대여 물품 등을 우편이나 외부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긴급 돌봄을 신청하여 등교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특수실무사가 학생의 활동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개별 지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수시로 학부모와 전화나 SNS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 및 건강관리, 학습 활동 점검 및 생활지도 지원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누가 기록 후, 향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 학부모는 “방학에 이어 장기간의 학교 휴업으로 인해 아이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과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 방법을 안내받으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특수 선생님은 아이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숨통을 트여주는 상담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수담당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정과 연계한 학습 지원이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개별화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개학 후 원만한 교육 활동과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농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 제안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들과 한국 농아인협회, 한국농교육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농(청각장애)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확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농대 학생의 발굴과 충분한 학습 지원을 비롯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농대 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학생 지원센터 강화 등 온라인 학습 지원 기준안 마련,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농학생(농청)의 온라인 학습 방안 마련 등 올바른 수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청와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 완도군, 저소득층 4천 7백여 가구에 한시생활비 23억 지원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한시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중위 소득 50% 이하) 4,724가구이며, 총 23억 원을 투입,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완도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

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저소득층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광양희양회,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에 코로나19 극복 위해 성금 50만원 전달

광양희양회(회장 홍영민)는 지난 2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50만원은 광양희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탁하였다.

전달식에 참여한 박상욱 초대회장과 홍영민 회장은 “광양희양회는 광양시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광양시민을 위해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광양시민을 위해 기탁해주신



광양희양회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희양회는 발족한 지 6년째로 광양시 거주하고 있는 1989년생부터 1993년생의 젊은 청년들의 친목과 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봉사로써는 서천변 정화, 백운산 정화, 요양원 청소, 각종 캠페인, 취약계층 아동 학습지원 등 광양시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권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코로나19 취약계층 학생 지원 나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3일에 걸쳐 보성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가정방문 대상 학생인 ‘더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장애인 부모, 다문화, 한부모 가정, 학교폭력 노출 위험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더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 및 손세정제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학습과 돌봄 결손 방지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백남근 교육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개학 연기 중에도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